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22, 야고보서 2:14-20

© 2024 David Bauer 및 Ted Hildebrandt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22회차 야고보서 2:14-20

입니다 .
이제 우리는 2장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는 것처럼, 내 형제 여러분, 2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권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그는 편파성에 관한 뒷받침하는 논거를 발전시켜 영광을 입증합니다.

사실, 뒷받침하는 주장은 여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두 가지 주장, 즉 편파성은 하나님의 선택, 즉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의 선택에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2:2부터 7까지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편파성은 율법에 어긋납니다(2:8부터 13).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2:8부터 13).

이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에서 그는 칭의에 관한 주장을 실제로 도입함으로써 2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실제로 뒷받침합니다. 행위에서 믿음을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여 행위로 표현되는 믿음에 의한 칭의는 이제 참된 믿음, 유효한 믿음인 모든 믿음은 그가 행위라고 부르는 것을 필연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면에 숨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분기, 이분법, 믿음과 행함의 분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우리는 James가 분기와 분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기초 위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의 쉐마에서 파생된 하나님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아, 주 우리 주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단순히 다른 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쉐마 의미의 한 측면이며 신명기 문맥에서 지배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임스가 지적한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분할되지 않고 전체라는 의미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간 창조물, 특히 그분의 백성, 즉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기점은 내가 말했듯이 제임스에게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는 이것을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로 본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광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면서 편파성을 보이는 행위는 제가 말했듯이 사람 안에 이분법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아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하여 믿음과 행함의 논증으로 말함을 실증하고,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화합해야 함을 입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그가 구체적인 권고에서 일반 원칙으로 이동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실증과 일반화가 모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2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묘사하고 탄식했던 종류의 분기점뿐만 아니라 편파성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권고는 일반 원칙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원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2.14부터 26까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이 부분인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전체를 살펴보면, 적어도 내 판단으로는 그가 일련의 수사적 질문을 통해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에서 이 원칙을 뒷받침하는 논증을 제시하는데, 이는 물론 우리가 여기에 실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원칙은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제시되어 있고, 그런 다음 그는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에서 이 원칙의 타당성을 입증하거나 지지하거나 이유를 제시한다.

이제, 그가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 분명히 표현한 원리 자체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읽은 것처럼, 죽은 것입니다. 물론 그는 여기에서 14절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참고로 여기 14절에서 주어야 했습니다. 즉, 그 선언은 행함이 없는 자신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선지자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실제로 입증이 포함됩니다. 그는 실제로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으며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이 주장을 실제로 입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이 말을 하는 까닭과 너희가 마땅히 믿을 것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이르되 가서 가라사대 평안히 입고 배불리 먹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그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단락 시작 부분의 선언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서 결론, 즉 추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물론 이는 그가 말한 내용에서 추론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논리적 인과관계이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제 2장 14절의 선언과 관련하여,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우리는 제임스가 상상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실제로 그가 여기서 하는 일은 이 장의 끝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이라고 부르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용어로 diatribe는 호언장담 같은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비난(Diatribe)은 고대 수사학의 어휘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대 연설가, 작가, 수사학자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관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종의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종의 논쟁을 말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상상의 대담자, 상상의 대화 파트너와의 일종의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이 상상의 사람과 함께 이미 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람, 즉 대담자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행함이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주의 깊게 주목하십시오. 이는 본문을 자세히 읽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주의 깊게 주목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람이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이것은 이 사람에게 실제로 믿음이 없음을 가리킨다.

그는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또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다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요, 대조되는 진술의 이 두 구성원 사이에는 어떤 대응도 없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행함이 없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매우 미묘하지만 매우 효과적으로 이 사람이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야고보가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나 가질 가치가 있는 믿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결론은 이 단락의 뒷부분에서 강화될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의 주요 요점은 이것이 그가 하는 예측, 그가 하는 주장, 즉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되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물론 이것은 수사적인 질문이므로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 형식의 선언이므로 실제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익이라는 용어는 타 오펠로스입니다. 그것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익이 없으며 RSV가 이익으로 번역하는 여기서 ta ophelos라는 단어는 이것이 내가 여기에서 생각해 낼 수있는 최고라는 것을 나타내며 유리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가 독자들과 공유하는 기독교 신앙 이해의 일부인 가정에 주목하십시오 . 그렇지 않다면 물론 그는 이것을 수사학적 질문의 형태로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고보가 독자들과 공유하는 신앙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일부인 여기서의 가정은 신앙이 본질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참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 믿음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믿음이 아무런 이로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어로 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익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그리스어의 관사, 그리스어의 정관사가 실증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관사가 실제로 입증 가능하게 사용된다면 이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것은 신약성경의 헬라어인 AT 로버트슨이 소위 대문법에서 제시한 판단입니다. 덧붙여서, 그가 처음 썼을 때 길이가 천 페이지가 넘었다고 해서 큰 문법이라고 부릅니다.

몇 년 후, 그는 할 말이 더 많다고 판단하여 500페이지가 추가된 제2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로버트슨의 대규모 문법에서는 이것이 그가 말한 것이고,

나는 그가 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제 믿음이 신자에게 미치는 유익한 효과가 이 문맥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납니다.

보이나요? 구원.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 또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의 형태이고, 선언적 형태로 다시 언급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사람이 일종의 믿음을 갖고 있지만 참된 믿음은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구원할 수 없는 일종의 믿음이므로 믿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이 개념은 야고보가 여기에서 몇 구절만 연결하고 몇 구절 아래로 칭의와 연결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는 구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원은 아마도 종말의 심판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문맥을 토대로 볼 때, 바로 앞 절에서 그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거니와 긍휼이 심판을 이겼느니라. 그건 그렇고 자비를 베푸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16 에 나오는 요점은 믿음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이제 그는 2:14에서 이 선언을 한 후 2:15와 2:16에서 이를 뒷받침합니다. 제임스의 방법을 주목하세요. 그는 모범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전 부분에서 그가 2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 정확히 하는 일을 보았으며, 거기에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을 때 편파성을 나타내지 말라는 권고를 지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매우 생생한 시나리오를 통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는 여기서도 같은 일을 합니다. 덧붙여서 그는 특히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가 방금 말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일종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여기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점을 밝히기 위해 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데우고 배불리 먹으라 하고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시 말하지만, 문맥을 보면 야고보가 자비에 관해 이야기할 때나 13절에서 자비에 관해 말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것은 무자비한 행동, 즉 자비를 나타내지 않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물론 저는 이 구원에 대해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그가 14절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거의 확실히 주로 마지막 때의 심판과 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 시간 판단.

그러나 나는 구원, 해방, 즉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자유의 종류를 제시하는 것, 즉 야고보의 구원론, 즉 구원론에서 구원의 한 측면을 제시하는 것도 야고보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12절의 문맥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자유의 율법 아래서 심판 받을 자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그는 이전에 1장 21절과 1장 25절에서 자유의 법으로서의 율법에 대해 말했고, 1장 21절에서는 영혼의 구원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그의 이해는 우리를 속박에 가두는 것들로부터의 현재의 구원,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삶의 완전한 경험을 실제로 방해하는 것, 특히 다음과 같이 이해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속박으로부터의 해방과 미래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제 제가 말했듯이, 증거는 15절과 16절에서 이 시나리오에서 발견되거나 뒷받침됩니다. 이것은 가상의 상황입니다.

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예로서 그러한 믿음은 무익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포함되었습니다. 유리한 효과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여기서 대조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실제로 주는 것의 대조입니다. 어떤 종류의 상응하는 행동도 포함하지 않는 말의 측면에서 가난한 사람과 관련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조는 행하지 않고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있습니다.

물론 그 연설은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입니다.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채워주세요. 자, 이 사업, 즉 행하지 않고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대조는 바로 그가 염두에 두고 있던 것, 즉 14절에서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되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시다시피, 당신은 행동이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행동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에 대한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여기서 행위 없는 말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여기에서는 행위 없는 말과 1:22부터 25까지의 행위 없는 듣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1장 22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문제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행동 없이 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기도에는 일종의 믿음이 표현되어 따뜻해지고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동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석과 해석, 다양한 유형의 해석 증거, 중요성, 변곡점에서의 잠재적 중요성, 문법적 의미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형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급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동태가 있습니다.

즉,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에게 무언가가 행해지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는 따뜻해지고 충만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수동태의 기능 중 하나가 이른바 신수동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약간 기술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때때로, 당신이 그것에 대해 정말로 공상하고 싶다면, 그것은 신성한 완곡한 표현의 수동태라고 불립니다. 누가 행동을 하는지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을 때 수동태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에 의해 따뜻해지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 행동에 책임이 있는지 표시하지 않고 수동태를 사용하는 경우, 누가, 누가 그것을 하는지, 저것, 저것에 대한 표시 없이 단순히 수동태를 진술하면 그것이 신성한 수동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당신이 신성한 수동태를 가질 때, 그것은 실제로 신이 행동의 이름 없는 주체이거나, 이 구절에서 이름 없는 행위자가 신에 의해 따뜻해지고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뜻하게 하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신성한 수동태는 아마도 거의 확실히 장치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그 시대의 그리스어에서는 많이 볼 수 없지만 신약성서에서는 대부분 발견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약 성서와 그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 작가들에게만 고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유대인인 신약성서 작가들 사이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의 요점은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극도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구약이 십계명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과 영광과 신성함, 거룩함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이름의 신성함에 대해 매우 민감했고, 하느님의 이름을 그처럼 존경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말하는 것조차 저속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찮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신성한 수동태였습니다. 따라서 문맥에서 누가 행동을 하는지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수동태를 사용한다면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꽤 분명하다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의 신성함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히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덧붙이자면, 그들이 개발한 또 다른 또 다른 방편은 최근에 도전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이것이 그렇다는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동의어입니다.

마태는 천국을 4번의 하나님의 왕국보다 약 33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문맥상 중요한 구절에서만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사용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왕국과 완전히 동의어이며 동일합니다. 그러나 또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사용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음, 하나님을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로 일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뜻하게 하시고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이 진술 사이의 암묵적인 비교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한 종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특정한 종류의 믿음, 즉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필요로하는 것.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어떻게든 충족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표현하는 말뿐인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는 이 구절에서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 일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형제자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공동체, 즉 동료 그리스도인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런 축복이나 소원, 소망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말하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자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13절,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리고 511절, 너희는 주의 인자하심을 들었고 주의 뜻을 보았으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아는 대로 행동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가 아는 것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여기에서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따르면 일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말된 믿음에 대한 적극적인 일관성.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James가 여기서 작품에 대해 말할 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서, 이 맥락에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말한 믿음과의 적극적인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과 자비의 활동에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과 16절에 대한 또 다른 간략한 설명은 RSV가 형제나 자매가 옷을 입지 않은 경우 15절을 옷이 없는 것으로 번역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단어는 gumnoi라는 것입니다. 적나라한.

이는 옷이 나쁘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알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며 아마도 여기서는 그렇게 번역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Ill-clad로 번역된 이유는 적절한 옷을 입을 자원이 부족한 사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벌거벗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수치심이라는 문제 전체를 가리킨다.

내 생각에 그는 실제로 가난의 또 다른 측면을 포착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 고통이나 물질적 결핍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부끄러움이 따르며, 물질적 필요와 물질적 결핍에 더해 자비로운 행동으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가난의 수치심에는 사회적

낙인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수치심에 대한 전체 개념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로 성경 전통 내에서 벌거벗음이라는 용어로 전형적으로 표현됩니다.

우선, 예를 들면 가을 설화에서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벌거벗음과 수치심 사이에는 개념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에 대한 예수님의 논의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증거의 측면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특히 마태복음에서 발견되는 예수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여러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의 전통, 특히 마태와 관련된 예수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반드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나는 그가 마태복음을 알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이 기록되고 몇 년이 지나기까지는 복음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태도 알고 있고 편입되었던 예수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은 내가 벌거벗었는데도 찾아오지 않았고 나에게 옷을 입히지도 않은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옷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전통으로 돌아가서 독자들에게 예수 자신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러한 종류의 일을 그의 가르침에 포함하기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음을 상기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데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16절의 맨 마지막 진술의 요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고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소 모호합니다. 이 진술은 개방형이며 실제로 함께 묶인 두 가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점이 뭐야?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함께 묶인 두 가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그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는 떠나고, 메모하고, 평화롭게 갑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는 2:2부터 4까지의 시나리오에서 James가 관계형 현실을 지적하기 위해 공간 설명과 공간 현실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사람은 부유 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여기 자리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공간적 근접성은 관계적 친밀감과 관계적 연결성을 암시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에게 거기 서 있으라고 하면 그 공간적 거리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도 없는 관계적 거리를 가리킨다. 그것은 16절의 시나리오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암시될 수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물론, 평화롭게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종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모호합니다.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제임스도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언어 아래에는 이 사람을 제거하려는 욕망, 그 사람과 분리되고 싶은 욕망, 이 불쌍한 사람을 그에게서 떠나게 하려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가십시오. 어쨌든 그는 여전히 벌거벗고 배고픈 채 떠나고, 기록하고, 평화롭게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믿음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단계에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공동체 내에서 아무런 유익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익합니다. 가난한 동료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익합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유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명백하고 명백한 사실은 또한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말하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는 긴밀한 연결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그리스도인 형제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조치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지역사회나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익함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로 그가 자신의 무익함에 관해 염두에 두고 있는 두 번째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용하고 인용하지 않는 축복을 말하는 이유는 그가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 곧 율법의 하나님, 곧 사랑의 법에게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이 사람은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진실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사랑의 하나님과 참으로 관계가 없느니라 . 13절과 5장 11절을 보면,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참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8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는 남에게 베푸는 긍휼로 판단하되 사랑의 법을 어기고 긍휼을 베풀기를 거절하는 자니라.

분명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17절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러한 믿음이 무익하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믿음이 무익하다고 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4절). 그러나 그 내용은 그 이상입니다. 17절은 믿음의 무익함을 말하는 14절을 단순히 다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이제 그는 이런 믿음의 죽음, 즉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이 이로운 효과와 이로운 유익을 낳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 믿음이 죽었다고 말할 때, 야고보는 그런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익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시체의 성격이다.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죽은 믿음입니다.

실제적인 목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품을 생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품을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죽은 믿음,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생명도 없고 활력도 없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므로 죽음과 상관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행위가 믿음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본질적인 표현임을 시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참되고 참되고 유효한 믿음이 전혀 없으며, 어떤 종류의 믿음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14절부터 17절까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8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가상의 대담자와 함께 비난, 이 토론, 이 대화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상되는 반대 의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즉, 제가 방금 말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모순된 의견,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제 이 인용문에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여기서 그가 말한 것,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한 17절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예상되는 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되는 점은 믿음이 행위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하느니라. 내가 말했듯이, 본질적인 주장은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편으로는 믿음에 대한 어떤 이해를,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의미합니다. 즉, 이 진술은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고립되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진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 아래로 조금 가면.

물론 우리는 적어도 18절부터 26절까지 진행하면서 야고보가 바울이나 바울, 바울, 바울, 바울의 가르침, 또는 바울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진행하면서 이것이 분명해지면 나는 야고보가 바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오해된 바울주의, 일종의 오해에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생각, 즉 칭의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일종의 왜곡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은 행함을 가질 수 있다는 이 개념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의 또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을 수도 있으며, 이는 영적인 은사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이것을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2장의 짧은 부분에서도 발견됩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인 은사에 관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신 모든 은사를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은 특정한 은사를 갖고 다른 구성원은 또 다른 은사를 받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어느 정도의 은사를 갖고 있으며, 일부 구성원은 하나 이상의 은사를 가질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은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커뮤니티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모든 구성원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은사를 분배한다는 이 개념은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 중 하나가 믿음의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야고보는 여기서 교회 내의 성령의 은사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한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너희에게는 행함이 있으니 이제 믿음과 행함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분배 체계, 공동체 내에서 은사 분배에 대한 바울의 개념, 즉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 다른 그리스도인은 행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임스는 그 개념을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주 명백하게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논증의 흐름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의 강조, 즉 행함 없이 믿음을 갖는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 대담자가 James가 논쟁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그가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그 반대라고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에게는 행함이 있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는 이 사람, 야고보를 문제 삼고 있는 이 상상의 대화자는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야? 사실 그것은 18b절의 바로 다음 진술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약간의 긴장감을 줍니다. 이 사람에게 이르시되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작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물론 학자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랫동안 토론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진술을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도입함으로써 여러분은 그가 “너에게는 행함이 있고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그 대신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야고보가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단순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행함이 없이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 반대, 즉 반대의 점을 만들고 싶어하는데, 즉 믿음 없이는 행함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반대할 만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믿음 없이 행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반대할 만한 문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행함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반응은 18a절의 예상된 반대에서 18b-26절의 반론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본질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18b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여기 갖고 있는 것은 일종의 심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는 이 주장은 문제이며,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그것은 또한 제임스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주장을 포함하므로 그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러한 항소와 관련하여 그는이 진술, 대담 자의 반대가 잘못되었다는 James의 암묵적인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그는 18b절에서 믿음 자체의 본질 때문에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것은 실제로 현실에 대한 호소이며, 믿음과 행함이 분리 가능하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그 주장이 입증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담자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백업할 수 없습니다. 사실, 현실로 뒷받침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과 반대입니다.

그는 대담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도전하고 현실에 호소합니다. 그는 단순한 주장에 참여하는 것보다 이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James가 여기서 말하는 것 뒤에 숨어 있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 고백의 본질은 그것이 전혀 의미가 있으려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그 본성상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믿음이나 표현할 수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의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그것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빼앗는다. 이제 그는 계속해서 마귀에게도 호소합니다.

19절에서 네가 믿는다. 물론 이것은 믿음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피스티스는 믿음이고, 여기서는 피스튜에이스,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 당신은 잘 지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좋습니다.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주장을 악마에게 호소합니다. 이 내용을 풀면서 James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우리가 세 가지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명시적으로 식별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믿음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식별합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실제로 믿음의 대상에 관해 이야기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즉, 사람이 믿는 것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믿음은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개인적인 신뢰와 헌신으로서의 믿음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2장 1절에서 보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목적 속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2:1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믿음은 행함과 함께 행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여기에는 개인적인 확신, 즉 하나님이라는 인격에 대한 확신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야고보의 이해의 일부는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인격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와 헌신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또한 믿음을 이해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야고보는 믿음을 신조에 대한 고수, 즉 하나님에 대한 특정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특정한 개념에 대한 확신을 두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신조와 특정 신조를 고수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뭔가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신조적 확증으로서의 신앙과 개인적 신뢰나 헌신으로서의 신앙을 너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인격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조 확인, 신조 동의로서의 신조 신념은 개인적인 신뢰나 확신의 일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의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 경건하게 말할 수 있고, 개인의 확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올바른 생각이나 옳다는 확증으로서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헌신이 우상 숭배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적 동의로서의 신앙과 개인적인 헌신과 신뢰로서의 신앙 사이에는 깊고 심오한 연결이 있습니다. 우연히 말씀드리자면, 위험 중 하나는 교회의 일부 부분에서 발견되는 진지한 신학과 신학적 사고에 대한 경시입니다. 항상 그랬지만, 특히 최근에는 우상 숭배의 위험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야고보가 신앙에 대해 총체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려진 하나님, 올바르게 알려진 하나님, 특히 유대인 신앙과 히브리 신앙의 핵심인 쉐마(Shema)로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와 헌신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으면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에서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동의가 제임스의 승인 표시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으면 잘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대로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잘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서신 전체의 논증과 권고 사이의 기본적인 신학적 확증이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야고보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합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신조주의로 이해될 수 있지만 제임스의 요점은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만 신조주의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만 신조주의이다. 믿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신뢰의 헌신에 대한 나의 헌신에 반대되는 단순한 신조적 동의로 만드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리적 신조주의에 동의하는 것과 개인적인 관계, 주목, 하나님의 친구를 확립하는 일종의 개인적인 신뢰에 동의하는 것은 아브라함에 따르면 개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개인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 즉 살아 있고 활기찬 믿음은 작품 부재. 신조에 대한 참된 믿음은 인간 전체의 헌신을 포함하며, 따라서 행위로 나타나는 바울의 의미에서의 믿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덧붙여서,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단순한 신조적 동의 또는 단순한 지적 동의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된 이 모든 사업은 인류학, 즉 고대 세계와 중세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인류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작가들.

왜냐하면 인류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무언가가 진실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필연적으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일에 대해 인지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완전히 설득될 수 있다는 개념에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임스는 분열된 사람들을 문제로 이야기하므로 우리는 그 생각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임스가 분열에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전체이고 통합되어 있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경향 중 하나는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는 그다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양의 현대성을 특징짓는 경향 중 하나는 성격을 구획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종의 인류학, 즉 인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고대인, 특히 성서적 인물의 사고와는 매우 이질적이고, 상당히 이질적인 일종의 구획화의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믿음의 대상을 넘어, 이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은 믿음을 주장하는 것의 내재적이고 노골적인 모순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공장. 믿음과 행위의 분리는 분리, 불일치, 하나님 자신의 이분법을 의미하며, 이는 믿음이 유지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라는 믿음은 믿음과 행위가 하나이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는 더 깊은 가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는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요점은 행위가 없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의 비효율성, 즉 비효과성이 귀신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주요 요점이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악마를 소개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그 신조를 확언하지만 그러한 종류의 믿음은 분명히 그들을 종말론적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행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는 귀신들 사이에 대조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도 있고 대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는 한 수준에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려는 사람들과 일종의 믿음을 가진 마귀들을 분명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이 무익한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전혀 이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과 여기에 묘사된 이 귀신들 사이에는 분명히 비교가 있지만 대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자들은 종종 이것을 간과하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라고 믿고 떨고 있는 귀신들 사이에 대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Jane의 요점을 강조할 수 있는 대조 요소가 있습니다.

즉, 마귀의 경우에도 이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믿고 몸서리칩니다. 악귀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으며, 제인의 말은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믿음과 일치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암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귀들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사물을 더 잘 알고 더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자, 성경에서 마귀와 귀신들이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찰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신학은 그 문제 중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공관복음 전통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마귀, 사탄이 일찍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4장 시작 부분에는 악마가 예수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악마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의 역할대로 예수를 유혹합니다. 는 번역될 수 있고 아마도 번역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정하는 일급 조건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것을 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것을 하라.

물론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기 전에도 귀신들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은 좋은 신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논증이고 그가 모든 것 중에서 자신의 요점을 뒷받침하는 매우 흥미로운 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마. 물론, 실제로 여기서는 확실한 논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없고 이런 믿음이 귀신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거든 하물며 우리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리요? 이제 그는 계속해서 성경적 증언에 호소하는데 이것은 꽤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잠시 멈춰서 다음 비디오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22회차 야고보서 2:14-20
입니다 .